

<http://doi.org/10.5253/kpac.2026.57.1>

『석북집(石北集)』 완역(完譯)의 의의*

엄태식**

차례

1. 머리말
2. 『석북집』 완역에 이르기까지
3. 완역본의 성과와 의의 및 오역의 사례
4. 정본과 전집, 그리고 대중화를 향하여
5.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논문에서는 『석북집』 완역을 계기로, 그 의의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번역한 『석북집』은 1906년에 간행된 목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완역한 것이다. 『석북집』에는 한시 1,843수와 산문 195편이 실려 있는데, 본 완역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석북집』에 실린 작품의 절반가량 번역이 이루어졌었다.

『석북집』 완역의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완역을 계기로 신광수의 삶과 문학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 둘째, 기존 번역본에 비해 수준 높은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신광수의 삶과 문학 및 『석북집』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만 본 완역본 역시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검토 결과 한시에서 오역이 많이 발견되었다.

* 본고는 2025년 10월 31일에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시가문화학회가 공동 주최한 ‘『석북집』 완역 기념 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지정 토론을 맡아 주신 제주대학교 윤세순 선생님, 한시와 관련하여 조언해 주신 조선대학교 박중훈 선생님, 한국고전번역원의 김낙철 선생님과 공근식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부 부교수

『석북집』 완역을 계기로 신광수의 삶과 문학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그 저본인 1906년 간행본은 오류가 적지 않으므로, 추후 ‘정본(定本) 석북 전집(全集)’이라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석북의 문학을 일반 독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선집(選集) 및 평전(評傳)의 집필과 출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석북, 신광수, 석북집, 석북집 완역본, 고전번역.

1. 머리말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은 3단계 총 30년으로 기획되어 2010년부터 시작되었고, 2025년 현재 2단계 2기 3차 연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거점연구소의 규모는 대형·준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되는데,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산하의 고전번역연구소는 2020년 2단계 1기부터 소형 연구소로 참여해 6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전임연구원이 매년 각각 1,800매씩의 번역 원고를 작성하여, 지금까지 정홍명(鄭弘溟)의 『기암집(畸庵集)』, 조희일(趙希逸)의 『죽음집(竹陰集)』, 김수증(金壽增)의 『곡운집(谷雲集)』, 이상(李翔)의 『타우유고(打愚遺稿)』, 백광훈(白光勳)의 『옥봉집(玉峯集)』, 신광수(申光洙)의 『석북집(石北集)』을 번역하였으며, 현재 윤동수(尹東洙)의 『경암유고(敬庵遺稿)』와 임상덕(林象德)의 『노촌집(老村集)』을 번역하고 있다.

고전번역연구소에서 완역한 『석북집』은 유종수·이민호·최이호 연구원이 2023년부터 번역을 시작해 2024년에 완료하였으며, 총 7,434매의 번역 원고가 2024년과 2025년에 평가를 통과하여 출판을 앞두고 있다. 번역서 기준으로 보면, 목차와 해제 등을 제외하고 번역문만 2,617쪽에 달하는데, 총 4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

이 글은 『석북집』 완역을 기념하여 그 성과와 의의, 그리고 향후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완역본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

다. 본문에서는 우선 기존의 『석북집』 번역본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완역본의 학술적 가치를 논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완역본에서 이룩한 성과를 제시하고 문제점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하는데, 오역의 사례도 몇 가지 검토할 것이다. 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에서는 역량이 검증된 연구원들이 번역 원고를 작성하고 매년 엄격한 평가를 받으므로 오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한국고전번역원의 평가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오역에 대한 지적은 번역자를 무시하거나 번역서를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번역의 가치는 정확성에 있는 만큼, 이런 성격의 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의 과제를 정본(定本)과 전집(全集)의 구축 및 대중화로 나누어 논하기로 한다.

2. 『석북집』 완역에 이르기까지

신광수의 문집인 『석북집』은 1906년에 신관휴(申觀休)가 간행한 16권 8책의 목활자본으로, 전국 주요 도서관 및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번에 완역한 『석북집』의 대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으로 『한국문집총간』 231'에 신경준(申景濬)의 『여암유고(旅菴遺稿)』와 함께 영인되어 있는 것이다.¹⁾ 『석북집』에 대해서는 ‘한국문집총간’의 해제에서 『석북집』의 서지사항, 신광수의 가계와 행력, 편찬 및 간행, 문집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기술한 바 있으므로,²⁾ 여기서는 수록 작품 수만 정리해 본다.

권	『석북집』 수록 내용	타인의 작
首	산문 1편.	張錫龍의 序.

1) 신광수(申光洙), 『석북집(石北集)』, 『영인표집 한국문집총간』 231, 민족문화추진회, 1999.

2) 신용남, 「537 석북집」, 『한국문집총간 해제』 5, 민족문화추진회, 2001, 313~317쪽.

권	『석북집』 수록 내용	타인의 작
1	한시 327수.	
2	西關錄. 한시 72수.	申光淵 1수, 申光河 1수.
3	한시 191수.	申光淵 3수, 申光河 1수.
4	한시 190수.	申光淵 4수, 신광하 8수.
5	驪江錄(上). 산문 1편, 한시 246수.	丁範祖의 序, 丁範祖 31수, 申光淵 2수, 申光河 4수, 申禹相 2수.
6	驪江錄(下). 한시 161수.	丁範祖 7수.
7	耽羅錄. 산문 4편, 한시 95수.	李漬의 序, 睦萬中의 序, 丁範祖의 序.
8	한시 198수.	申爽相 2수, 申履相 2수.
9	한시 180수.	
10	한시 183수.	
11	書. 산문 52편.	
12	書. 산문 46편.	
13	書·疏·上樑文. 산문 26편.	
14	祭文. 산문 31편.	
15	序·碑陰記·傳·儷文. 산문 19편.	
16	雜著·附錄. 산문 14편.	申光河의 行狀, 申禹相의 年記.
末	산문 1편.	申觀休의 跋.

『석북집』의 권1~권10은 대부분 한시이고 권11~16에는 산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석북집』 소개 한시는 1,843수이고 산문은 195편이다.³⁾ 한시에는 타인의 시작을 부기한 것이 있고, 산문 가운데는 타인의 서발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제외한 신광수의 작은 한시 1,775수, 산문 187편이다. 완역본에서는 『석북집』에 실린 모든 시문을 번역하였다.

3) 편수는 계산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한시의 경우, 권1에 실린 詩經體 작품 <送明府>는 모두 7장이지만 한 수로 보았고, 기타 <關西樂府> 같은 경우는 108수로 계산하였다. 산문의 경우, 신광수의 한시 앞에 붙어 있는 서문[并序], 예컨대 <관서악부>의 序 같은 것은 별도의 작품으로 보지 않았으나 '驪江錄'과 '耽羅錄'의 경우, 타인의 序와 自序가 아울러 실려 있으므로 이 서문들은 산문 편수에 넣어 계산하였다. 한편 권16의 <余既爲鄭氏書狂奴子事又爲長歌以歸之> 같은 작품은 산문이라 할 수 없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권10까지 수록 작품을 한시로 보고 권11 이후는 산문으로 계산하였다.

신광수 문학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이가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신광수의 생애와 사상, 문학관과 교유 관계 등을 살펴본 뒤, 한시에서는 행시(行詩)·악부(樂府)·염체시(艷體詩)를 고찰하였으며 산문에서는 전기문학(傳奇文學)으로 <서마기사사(書馬騎士事)>·<호승전(虎僧傳)>·<검승전(劍僧傳)>을 다루었다.⁴⁾

이가원 이후 신광수에 대한 연구는 한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석북집』에 실린 시문의 양이 워낙 방대한 데다 번역본도 없어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광수 문학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후손 신석초 시인의 번역본 『석북시집·자하시집』의 출간이다. 이 책은 신광수와 신위(申緯)의 한시를 한데 묶어 선역한 것으로⁵⁾ ‘석북시집’은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신석초 역본 수록 내용	『석북집』 권별 수록 작품 수
1	西州雜詩(上). 67수.	권1 43수, 권3 23수, 미수록 1수.
2	西州雜詩(下), 大興寺詩篇. 64수.	권1 11수, 권3 18수, 권4 28수, 권10 7수.
3	漢京雜咏. 84수.	권1 53수, 권3 18수, 권4 4수, 권9 2수, 권10 6수, 미수록 1수.
4	西關錄. 60수.	권1 1수, 권2 59수.
5	驪江錄. 107수.	권5 76수, 권6 31수.
6	耽羅錄. 35수.	권7 35수.
7	北山錄. 105수,	권8 63수, 권9 26수, 권10 16수.
8	臨漳錄, 粵中錄. 44수.	권9 44수.
9	樂府(上). 75수.	권1 12수, 권4 32수, 권6 10수, 권10 20수, 미수록 1수.
10	樂府(下). 108수.	권10 108수.

번역서의 앞부분에 실린 ‘석북시집 해설’에 의하면, 1906년 간행본, 곧 한국문집총간 수록본과 동일한 것을 저본으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석북집』과 마찬가지로 총 10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수록 내용과 체제는 『석북집』과 다르다.

4) 이가원, 「석북문학연구」, 『동방학지』 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9, 149~204쪽.

5) 신석초 역, 『석북시집·자하시집』, 대양서적, 1973, 1~401쪽.

신석초 역본에는 각 권마다 제목이 붙어 있다. 1760년 관서(關西)에 갔을 때의 작품을 모은 제4권 ‘서관록(西關錄)’, 영릉(寧陵) 참봉(參奉) 시절의 시작들인 제5권 ‘여강록(驪江錄)’, 1764년 제주도에 갔을 때 지은 시를 묶은 제6권 ‘탐라록(耽羅錄)’은 『석북집』에 사용된 명칭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서주잡시(西州雜詩)’와 ‘한경잡영(漢京雜咏)’은 경향에서 지은 시들을 모은 것이고, ‘대흥사시편(大興寺詩篇)’은 해남(海南) 대흥사 관련 시작들인데, 이 명칭들은 신석초가 붙인 것이다. 한편 갑신년(1764)부터 정해년(1767)까지 북촌(北村)에 거주할 때의 시들을 모아 놓은 ‘북산록(北山錄)’, 연천(漣川) 현감(縣監) 시절의 시작인 ‘임장록(臨漳錄)’, 영월(寧越) 부사(府使)로 있을 때의 작품인 ‘월중록(粵中錄)’의 경우,⁶⁾ 역시 간행본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이런 시권(詩卷)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⁷⁾ ‘악부(樂府)’에는 <관산용마(關山戎馬)>·<한벽당십이곡(寒碧堂十二曲)>·<금마별가(金馬別駕)>·<관서악부(關西樂府)> 등 악부시 계열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신석초 역본에는 749수의 한시가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석북집』 소재 한시는 746수이고, 3수는 문집에 실리지 않은 것이다. 제1권의 <금산사제백곡선사시축(金山寺題白谷禪師詩軸)>과 제3권의 <춘일유경복궁구지(春日遊景福宮舊趾)>⁸⁾는 각각 『송문연방집(崇文聯芳集)』 수록본 권2와 권4의 말미에 부기된 것이고, 제9권의 <관산용마>는 문집 미수록 작품이다.

작품 수로만 계산해 보면, 신석초 역본은 『석북집』 소재 신광수 한시의 42%가량 번역한 것으로, 완역본 이전에 이루어진 성과 중 가장 방대하고 탁월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 역본은 현재 그 소재가 불분명한 초고본 계열 필사본을 참조한 것이라는 점에서, 간행본의 오류를 교정한 『송문연방집』과 더불어 그 자료적 가치 또한 크다고 하겠다.

신석초의 역본 이후에도 몇 종의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허경진의 『석북 신

6) 위의 책, 194쪽.

7) 이은주, 「석북 문집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215~224쪽.

8) 제목의 ‘趾’는 ‘址’의 잘못으로, 『崇文聯芳集』에는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광수 시선』에는 『석북집』 수록 한시 107수가 선역되어 있는데,⁹⁾ 그중 신석초 번역본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은 <왕년(往年)>·<기중제서림신우(寄仲弟西林新寓)>·<문초지자보령야좌화시(文初至自保寧夜坐話詩)>(其一)·<여회팔영(旅懷八詠)>(其六·其八)·<납월구일행(臘月九日行)> 6수이다. 제주문화원에서 발행한 『역주 제주 고기문집』에는 ‘탐라록’이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와 함께 번역되어 있다.¹⁰⁾ 『석북집』 권7의 ‘탐라록’ 서문 4편과 한시 95수를 완역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해제’에서 ‘탐라록’ 서문을 쓴 법정(法正)을 대흥사 주지 승려로 잘못 설명하는가 하면, 생일을 맞이하여 쓴 시의 ‘초도일(初度日)’을 ‘처음 건너온 날’이라 번역하는 등 오류가 발견된다. 이은주의 『관서악부』는 『석북집』 권10의 <관서악부> 108수를 완역한 것으로, 자세한 해설을 가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¹¹⁾ 익산 관련 문헌을 모은 『금마일기·유금마성기·금마별가』에서는 <금마별가> 32수를 번역했다.¹²⁾ 신광수의 한시는 그간 출간된 수많은 한국 한시 선역집에도 실려 있어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운데, <채신행(採薪行)>·<잠녀가(潛女歌)>·<제주 걸자가(濟州乞者歌)>를 번역한 『이조시대 서사시』가 대표적이다.¹³⁾

이상으로 신광수의 한시 번역본들을 검토하였다. 신광수는 시인으로 이름이 났고 그의 한시는 지역별로 작품이 묶여 유통되기도 했던 만큼, 다수의 번역본에 유명 작품이 실렸고 지자체에서 발간한 번역서도 존재한다. 이들은 저마다 특색이 있지만, 가장 큰 의의를 지닌 것은 역시 신석초 번역본이라 하겠다.

『석북집』 소재 산문의 번역은 한시에 비하면 소략하고, 신광수의 산문만 번역한 책도 없다. 산문 번역은 서사성이 강한 전(傳)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전계소설(傳系小說) <검승전(劍僧傳)>이 이가원의 『이조한문소설선』에

9) 허경진 엮음, 『석북 신광수 시선』, 평민사, 1989, 1~135쪽.

10) 김일우·홍기표·김익수 역, 『역주 제주 고기문집』, 제주문화원, 2007, 1~432쪽.

11) 이은주 역해, 『관서악부: 평안감사가 보낸 평양에서의 1년』, 아카넷, 2018, 1~354쪽.

12) 이의강 외 역, 『금마일기·유금마성기·금마별가』, 익산시, 2021, 1~509쪽.

13) 임형택, 『이조시대 서사시』 (상), 창작과비평사, 1992, 1~319쪽.

처음 실린 이래로 누차 번역되었으며,¹⁴⁾ 신광수의 대표작인 <서마기사사(書馬騎士事)>와 <호승전(虎僧傳)> 등도 번역되었다.¹⁵⁾ 그 밖에 『석북집』 권15의 <근예준선서(近藝雋選序)>와 <증신봉거서(贈申鵬舉序)>가 비평 자료로,¹⁶⁾ 권14에 실린 여성 제문 6편과 권15의 <정열부전(鄭烈嬪傳)>이 여성생활사 자료로 번역된 바 있으며,¹⁷⁾ ‘탐라록’의 서문 4편은 앞서 언급한 『역주 제주 고기문집』에서 번역되었다.

『석북집』은 번역서뿐만 아니라 연구서나 연구논문에서도 번역이 이루어져 이루 다 거론하기 어려운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기현의 『석북 신광수 문학 연구』이다.¹⁸⁾ 이 책은 신광수의 한시와 산문 전반을 다룬, 가장 방대한 연구 성과로, 『석북집』 미수록 작품들도 포함하고 있다. 『석북집』 소개 시문의 경우, 한시 171수와 산문 31편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시 135수와 산문 6편은 완역이다.¹⁹⁾

완역본 이전의 번역 성과를 살펴보면, 그 분량으로 헤아려 볼 때 『석북집』의 절반가량은 번역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고전번역연구소에서 완역한 『석북집』은 이상 언급한 성과들을 이어받아 아직 번역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작품들까지 번역한 것이다.

3. 완역본의 성과와 의의 및 오역의 사례

현재 『석북집』 완역본은 파일 형태로만 정리되어 있을 뿐인데, 그 분량은 2

14) 이가원 역편, 『이조한문소설선』, 민중서관, 1961, 1~514쪽; 신해진 선주, 『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1~363쪽; 박희병·정길수 편역, 『기인과 협객』, 돌베개, 2010, 1~210쪽.

15) 임형택 역, 『한문서사의 영토』 1, 태학사, 2012, 1~528쪽; 정민·이홍식 편역, 『한국산문선』 6, 민음사, 2017, 1~392쪽.

16) 조남권·이진오 편역, 『한국고전비평론』 2, 민속원, 2007, 1~528쪽.

17) 김남이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8, 보고사, 2010, 1~566쪽.

18) 이기현, 『석북 신광수 문학 연구』, 보고사, 1996, 1~523쪽.

19) 인용문 형식으로 번역된 것만 계산하였다.

천 6백여 쪽에 달하므로 번역문을 통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필자 역시 『석북집』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이 글을 쓰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번 완역본의 성과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석북집』을 최초로 완역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신광수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남긴 글 전체를 읽어 보아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번역은 선역일 뿐이어서 그것이 불가능했다. 완역본 이전에도 『석북집』의 절반은 번역되었으므로 주요 작품들은 이미 알려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선역에서는 작품 선정에 있어 역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어려운 작품은 번역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의 경우, 원문을 훑어보거나 초벌 번역을 하면서 『석북집』을 통독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번역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광수의 삶과 문학의 전모는 이번 완역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번역본 대비 수준 높은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고전번역연구소의 전임연구원 전원은 본 번역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한국고전번역원의 역자로 활동하여 그 역량을 인정받은 이들이며, 『석북집』은 2024년과 2025년에 이루어진 한국고전번역원의 평가를 통과한 원고이므로, 번역서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난 상태이다. 완역본이 가장 큰 빛을 지고 있는 신석초 역본을 살펴보면, 오역이 없지 않고 주석도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는 변변한 공구서조차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으므로, 우연한 실수를 가지고 그 가치를 폄하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번 완역본은 신석초의 번역본이 나온 지 반세기 만에 이룩된 성과인 만큼 그동안 번역의 환경 역시 크게 달라졌다. 검색을 통해 출전을 확인하고 번역 용례를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광수의 문학에 대한 학계의 연구 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완역본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번역의 정확성을 높였고, 4천 1백여 개의 주석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셋째, 신광수의 삶과 문학 및 『석북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간의 신광수 문학 연구는 한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중에

서도 <관산용마>나 <관서악부> 같은 대표작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으며,²⁰⁾ 산문의 경우 <검승전> 정도가 고전소설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²¹⁾ 이번 완역을 계기로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작품들에 대한 본격적 연구 가능하게 되었으니, <해남두륜산대둔사팔상전철경루중수상량문(海南頭輪山大菴寺八相殿鐵鏡樓重修上樑文)>은 신광수의 불교에 대한 조예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한문학 및 불교학에서의 연구를 기대할 만하며, <광노자 묘지의 일을 적대[書狂奴子墓誌事]>는 문학 연구자와 역사학자가 함께 다루어 볼 가치가 있는 글이다.²²⁾ 한편 『석북집』에는 다채로운 내용이 담겨 있어 연구자들이 주목해 왔는데, 예컨대 <관서악부> 제15수의 ‘一般時調排長短 來自長安李世春’이라는 구절이나 <원창의 부채에 쓰다[題遠昌扇]>에 보이는 <춘면곡(春眠曲)>은 시가 연구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은 바 있다.²³⁾ 이번 『석북집』 완역을 계기로 그간 눈길이 닿지 않았던 작품들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다양한 분야의 학술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석북집』 완역본은 신석초의 선역 이후 반세기 만에 나온 것으로, 그간 축적된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룩한 성과이지만, 완역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석북집』을 제대로 번역해 내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난관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20) 윤경수, 『석북시연구 -석북문집 소재를 중심으로-』, 정법문화사, 1984, 1~231쪽; 신장섭, 『석북 신광수와 관서악부 연구』, 북스힐, 2008, 1~384쪽; 심경호, 「관산용마의 형식과 주제사상」,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 169~193쪽; 이은주, 『행복한 상상, 신광수의 관서악부』, 도서출판 설렘, 2023, 1~284쪽.

21) 정하영, 「검승전의 인물형과 갈등 양상」,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93~123쪽; 정인혁, 「검승전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97~225쪽; 박우훈, 「석북 신광수의 산문세계」, 『인문학연구』 33-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47~70쪽; 김경희, 「검승전에 나타난 인물 관계의 다문화적 고찰」, 『다문화와 평화』 8-3,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4, 21~43쪽; 조현우, 「조선 후기 소설의 황해 형상과 민족의 구성 -검승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7, 한국고소설학회, 2024, 5~38쪽.

22) 이은주, 「진짜인가, 진짜로 만든 것인가 -18세기 광노자 사건의 이해-」, 『이화어문논집』 49, 이화어문학회, 2019, 30~53쪽.

23) 이상원, 「이세춘 그룹의 가악 활동 양상과 특징」, 『국제어문』, 50, 국제어문학회, 2010, 93~120쪽; 송지원, 「석북과 음악」,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225~239쪽.

같이 『석북집』에는 당대의 시조 향유나 가창·연행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가 하면, 불교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창작된 상량문도 수록되어 있다. 또 <관서약부> 같은 작품의 경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양의 풍속·지리·역사 및 당대의 제도·문물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며, ‘서관록’·‘여강록’·‘탐라록’ 등에는 지역적 특색을 드러내는 시작들이 다수 실려 있다. 요컨대 『석북집』에는 신광수가 살았던 18세기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바, 『석북집』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당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학자이자 문인이며 관료이기도 했는데, 그들의 성향은 문집을 보면 대체적으로 드러난다. 중년 이후에야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던 신광수는 학자라기보다는 전형적인 문인이며 한시와 산문 중에서 특히 한시에 뛰어났다.²⁴⁾ 완역본은 중전의 성과들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확히 번역한 것이기는 하나 오류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는데, 필자가 검토해 본 결과 오역은 한시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해 본다.

첫째, 시상의 전개 및 시제 등과 관련하여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경우이다. 한시는 산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함축성이 높는데, 특히 오언시는 칠언시에 비해 글자 수가 적으므로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단어를 보충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은 ‘여강록’에 실린 두 수의 오언율시 연작이다.

법정을 내가 뜻밖에 찾아갔다 곧장 돌아가면서 중구일에 배를 타고 찾아가
기로 약속하고서 쓸쓸하게 홀로 읊조리다[法正不意見訪 卽歸 約以九日泝訪 悄然
獨吟]

江漢同舟去 강물에서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秋深事杳然 가을 깊어 만날 일 아득해졌네
誰知楓葉後 누가 알았으리오 단풍철 지난 뒤

24) 신광수 및 신광수 집안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안대회, 「석북가와 조선 후기 문단」,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207~214쪽.

更見菊花前 다시 국화 앞에서 만날 줄을
 少歇穿林屐 숲속으로 찾아와 잠시 쉬었다가
 催歸上峽船 골짜기로 오르는 배 타고 서둘러 돌아가누나
 二陵惆悵意 이릉에서 마음 서글픈데
 終日萬峰烟 종일토록 일만 산엔 이내 껴 있네

우선 제목을 보면, ‘法正不意見訪’을 “법정을 내가 뜻밖에 찾아갔다”라고 번역하였는데, ‘내가’라는 말은 보충한 것이다. 그런데 ‘見’은 내가 주어라면 피동의 뜻이지만 상대가 주어일 경우 상대가 나에게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見訪’은 정범조가 나[신광수]를 방문해 주었다는 말이지 정범조가 방문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시의 제목은 “법정이 뜻밖에 방문했다가 곧장 돌아갔다. 중구일에 배를 타고 찾아가기로 약속하고서 쓸쓸하게 홀로 읊조리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수련에서는 “강물에서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가을 깊어 만날 일 아득해졌네.”라고 했다. 원문에는 ‘만날’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으나 번역 과정에서 문맥을 고려하여 보충한 것이다. 신석초는 “강마을에 배를 같이 타고 가던 일, 가을이 깊어 이미 아득하구나.”²⁵⁾라고 번역했는데, ‘江漢’을 ‘강마을’로 번역한 것에는 의문이 있지만 전체 맥락은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한다. 제2구의 ‘事’는 제1구의 ‘江漢同舟去’를 가리키고 ‘秋深’은 신광수가 정범조를 만나고 있는 현재의 계절적 배경이니, 가을이 깊어져 과거의 뱃놀이가 아득한 일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당시 신광수와 정범조는 배를 타고 강물을 오르내리며 서로 방문하는가 하면, 강물에 배를 띄워 놓고 함께 뱃놀이를 즐기기도 하였다. 예컨대 <섬강으로 법정을 찾아갔다 함께 배를 띄워 신록사로 내려오다[蟾江訪法正同舟浮下神勒寺]>의 경우, 신광수의 한시 5수에 정범조의 한시 5수를 부록하였는데, ‘江漢同舟去’가 바로 이때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정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²⁶⁾

25) 신석초 역, 앞의 책, 161쪽.

함련에서는 신광수와 정범조가 만난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석초 역시 “누가 알았으리 단풍절 지난 뒤에, 다시 국화 앞에서 만날 줄을.”²⁷⁾ 이라고 번역했다. 두 번역 모두 신광수와 정범조가 단풍절이 지난 뒤 국화 앞에 만났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제목의 ‘約以九日泝訪’이다. ‘구일(九日)’은 중구일(重九日), 곧 중앙절(重陽節)로, 국화주를 마시는 풍속이 있기에 한시에서 ‘구일’은 으레 ‘국화’와 연관된다. 신광수는 중구일에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정범조를 만나기로 약속했으므로, 정범조가 신광수를 불시에 찾아온 때는 중구일 이전이다. 둘이 만났을 때 실제로 국화가 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의 ‘菊花前’은 결국 ‘九日前’이라는 말이므로, ‘菊花前’은 ‘국화 앞’이 아니라 ‘국화가 피기 전’이다. 함련은 “단풍잎이 지고 나서 국화가 피기 전에 다시 만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라는 뜻인데, ‘다시 만났다[更見]’는 말에서 수련이 과거의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경련의 ‘少歇穿林屐’은 “숲을 뚫은 나막신을 잠시 쉬게 했다.”라는 말이므로, 정범조가 나막신을 신고 수풀을 지나 찾아와 잠시 쉬었다는 뜻이지 숲속으로 찾아온 것은 아니다. ‘催歸上峽船’는 “협곡을 오르는 배를 재촉해 돌아간다.”라는 의미이다. 당시 신광수는 여주에 있었고 정범조는 원주에 살았으므로 ‘上峽船’ 위에 있는 사람은 정범조일 수밖에 없다. 미련은 정범조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신광수의 심정을 읊은 것이다.

두 번째[其二]

-법정이 <벽사로 왔을 때>의 시를 읊조려 들려주다.[法正誦傳來時巒寺詩]-

蟾江楓未落 섬강 단풍 아직 지지 않았더니
 秋色爾來時 가을빛 그대 올 때 완연하다네
 更對寧陵客 다시 영릉의 나그네와 마주하고
 新傳巒寺詩 벽사에서 지은 시 새로 전해주는나

26) 이항배, 「석북 신광수의 여강록 연구」, 『한문학논집』 67, 근역한문학회, 2024, 73~99쪽.

27) 신석초 역, 앞의 책, 161쪽.

孤舟亦老興 외론 배 타자 또 늙은이 흥취 일어나니
 九日是前期 중구일에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네
 無限滄洲事 무한히 일어나는 창주로 가고 싶은 십사
 今年我輩爲 올해 우리들이 할 일이라네

같은 제목의 두 번째 시로, ‘法正誦傳來時巒寺詩’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번역에서는 ‘來時巒寺’를 <벽사로 왔을 때>라는 시로 보았지만, ‘來時巒寺’는 ‘벽사로 왔을 때’라고 번역될 수 없고 이것을 시의 제목이라고 할 수도 없다. ‘法正誦傳來時巒寺詩’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에 축약하여 쓴 말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작품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수련은 “섬강 단풍 아직 지지 않았더니, 가을빛 그대 올 때 완연하다네.”라고 번역하여, 제1구는 과거 시제로, 제2구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였다. 섬강에 아직 가을이 무르익지 않았었는데 ‘그대[정범조]’가 찾아온 현재 가을빛이 완연하다는, 다시 말해 정범조가 완연한 가을빛을 물고서 신광수를 방문해 주었다는 의미로 본 듯하다.

제2구 ‘秋色爾來時’는 정범조가 신광수를 찾아온 때의 가을빛을 말하는데, 이는 제1구 ‘蟾江楓未落’을 가리킨다. 첫 번째 시 수련의 ‘秋深事杳然’이 ‘江漢同舟去’를 가리킨 것과 동일한 구조이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爾來時’인데, 바로 이 ‘來時’가 주석의 ‘來時’이다. 그렇다면 ‘來時’는 현재인가, 아니면 과거인가? 앞의 시 함련에서 ‘楓葉後’에 만났다고 했으므로 여기서의 ‘楓未落’은 과거의 일이다.

함련에서는 ‘更對寧陵客’이라고 했다. 앞 시의 제4구 ‘更見菊花前’의 ‘更’을 통해 ‘江漢同舟去 秋深事杳然’이 과거의 일임을 알 수 있었듯이, ‘更對寧陵客’의 ‘更’을 근거로 ‘蟾江楓未落 秋色爾來時’ 또한 과거사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제4구 ‘新傳巒寺詩’는 “벽사에서 지은 시 새로 전해주느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巒寺詩’가 ‘벽사에서 지은 시’인지 ‘벽사를 소재로 한 시’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그냥 ‘벽사시’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4구의 ‘巒寺

詩가 바로 주석의 ‘巖寺詩’를 뜻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수련과 함련의 내용을 종합하여 주석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정범조는 과거 단풍이 지기 전에 신광수를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벽사와 관련된 시를 지은 일이 있었을 터이고, 그 시를 지금 신광수 앞에서 새롭게 외워서 전하고 있다. 따라서 ‘法正誦傳來時巖寺詩’는 “범정이 (이전에) 왔을 때의 벽사시를 외워서 전해 주었다.”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경련은 “외론 배 타자 또 늙은이 흥취 일어나니, 중구일에 만나기로 미리 약속하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광수가 현재 배를 타고 떠나면서 중구일에 만나기로 정범조와 약속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배에 올라 돌아가는 사람은 정범조이므로 이 번역은 옳지 않다. 경련의 두 구는 모두 ‘約以九日派訪’을 말하고 있다. 즉 노년의 신광수가 홀로 배를 타고 중구일에 흥겹게 찾아가기로 미리 약속했다는 말이다. 미련은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두 수의 시는 긴밀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상의 전개 방식도 동일하다. 두 시 모두 수련에서는 과거의 만남을 회상하였고, 함련에서는 정범조가 뜻밖에 다시 찾아왔을 때를 읊었다. 그리고 경련에서는 정범조가 떠나는 모습 및 그때 한 약속을 말하였으며, 미련에서는 정범조가 떠난 후의 서글픈 심사와 앞으로의 다짐을 이야기하였다. 요컨대 연 단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객과 관련한 시적 맥락의 문제이다. 다음은 ‘맷돌’을 소재로 한 <마두석(磨豆石)>으로 『석북집』 권1에 실린 작품인데, 앞의 것이 신석초 역본이고 뒤의 것이 완역본이다.

맷돌[磨豆石]

曹郎側見女 조랑이 흘깃 걸눈질을 하며
腹中陰作計 뱃속엔 잔뜩 흥계를 꾸미렀다

願爲磨豆石 원컨대 마두석이나 되어
 得親郎手勢 서방님 손길 잡아보고지고²⁸⁾

曹郎側見女 조랑이 얼핏 여인을 보니
 腹中陰作計 뱃속에 몰래 속셈이 있다네
 願爲磨豆石 원컨대 멧돌이라도 되어
 得親郎手勢 신랑의 손길을 받았으면 하고

두 번역은 유사해 보이지만 제2구의 이해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원역본에서는 ‘腹中陰作計’의 주체를 여인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제1구와 제2구는 조랑이 여인의 뱃속에 속셈이 있음을 엿본 것이고, 제3구와 제4구는 그 속셈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경우, 조랑이 ‘얼핏’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마음을 저렇게나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 여기서 ‘側見’은 신석초의 번역처럼 겉눈질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듯한데, 그렇게 보아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한편 신석초는 제2구의 주어를 ‘조랑’으로 보았으므로, 제1구와 제2구는 매우 합리적으로 이해된다. 겉눈질하는 사람이 흥계를 꾸미는 게 이치상 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제3구와 제4구에 보이는 바 낭군(郎君)의 손길을 가까이하고 싶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 결국 신석초의 번역은 앞의 두 구와 뒤의 두 구가 서로 모순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자신할 수 없지만, ‘曹郎側見女’를 ‘조랑을 겉눈질하는 여인’으로 볼 것을 제안해 본다. 산문이라면 이렇게 번역될 수 없겠지만, 시에서는 맥락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작품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례인데, 이 경우 번역뿐만 아니라 주석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여강록’에 실린 작품이다.

28) 위의 책, 90쪽.

장난삼아 벽사의 벽화에 적다[戲題壁寺壁畫]

洛陽東村梨花亭 서울 동쪽 마을에 이화정 있는데
 麻姑家賣梨花酒 마고의 집에선 이화주 판다네
 門前沽酒李仙來 문 앞에서 술 사러 이씨 신선 이르자
 錯吠青毛千歲狗 푸른 털의 천 년 묵은 개가 잘못 짖어대네

이화정(梨花亭): 동호(東湖)에 있는 정자 이름이다. 『남계집(南溪集)』 권4 <동호이화정유작(登東湖梨花亭有作)>의 원주(原註)에 “효종대왕의 잠저 때 옛 정자이다.[孝宗大王潛邸舊亭.]”라고 하였다.

마고(麻姑)의 집: ‘마고’는 전설 속의 선녀 이름인데, 여기서는 주모(酒母)를 말한다.

이화주(梨花酒): 배꽃이 필 때 익는 술을 이르는 말이다. 백거이(白居易)의 <항주춘망(杭州春望)> 시의 자주(自註)에 의하면 “항주 지방의 풍속은, 술을 빚어서 배꽃이 필 때에 익는 술을 이화춘이라 호칭한다.[其俗釀酒, 趁梨花時熟, 號爲梨花春.]”라고 하였다.

이씨 신선: 이백(李白)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저자 자신을 말한다.

신록사(神勒寺)에 그려진 벽화를 보고 지은 희작시(戲作詩)이다. 기존의 번역이나 해석 역시 완역본과 다르지 않아, 신석초는 “낙양 동쪽 마을 이화정에, 마고선녀가 이화주를 팔고 있네. 문 앞에 술 사러 온 이적선을, 천년 묵은 청삼사리가 잘못 보고 짖어대네.”라고 번역하였고, 이기현도 비슷하게 번역한 뒤 신광수가 술을 먹고 벽사에 이르자 청삼사리가 이적선(李謫仙) 같은 그를 몰라보고 짖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였다.²⁹⁾ 그러나 이 시는 고전소설 <숙향전(淑香傳)>을 제재로 한 작품이다. 낙양(洛陽) 동촌(東村)에 있는 이화정(梨花亭)은 소설의 여주인공 숙향(淑香)이 마고할미와 함께 머물렀던 집으로, 남주인공 이선(李仙)이 숙향을 찾아온 곳이기도 하다. ‘靑毛千歲狗’ 역시 <숙향전>에 등장하는 ‘청삼사리’이다. 신광수는 벽사에 그려진 벽화를 보고 <숙향전>을 떠

29) 위의 책, 140쪽; 이기현, 『석북 신광수 문학 연구』, 보고사, 1996, 316쪽.

올려 이 시를 지었던 것이니, 회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제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사례이다. 다음은 ‘탐라록’에 실린 <문자(文字)>이다.

문자[文字]

島中春瘴起	섬에는 봄 장기 일어나고
城上海風熏	성 위에는 바닷바람 찌누나
水墮臙脂日	물에는 연지 같은 붉은 해 떨어지고
山蒸草木雲	산에는 초목에 서린 구름 피어오르네
靑袍親異俗	청포 걸친 객은 다른 풍속에 적응했지만
白首遠明君	백수에 명군과 멀리 떨어져 있도다
苦濕經年病	해 지나도록 괴롭게 습증 앓았는데
南來更十分	남쪽으로 오니 더욱 심해졌도다

김익수의 번역에서도 제목을 원문 그대로 ‘문자’라고 하였는데,³⁰⁾ 이 시의 제목이 ‘文字’인 이유는 문운(文韻)으로 압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가 드러나도록 의역하거나, 완역본의 <신록사에서 ‘한’ 자를 얻어 함께 읊다 [神勒寺得寒字共賦]>·<밤에 ‘환’ 자를 얻다[夜得暄字]> 같은 번역 사례처럼 작은따옴표를 붙이고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한편 경련의 경우, 기존 번역 역시 “청포로 이방의 풍속에 익어, 백수는 밝으신 임금과 멀기만...”³¹⁾이라고 했지만, 여기서의 ‘親’은 ‘익숙하다’가 아니라 ‘가깝다’로 보아야 할 듯하다. 즉 청포 입은 늙은이가 임금 계신 서울을 멀리 떠나 익숙(異俗)의 제주인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기번역의 오류를 답습한 경우이다. 문집을 번역할 때 선행하는 번역본이 있거나 관련 연구 성과가 풍부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큰 도움이

30) 김일우·홍기표·김익수 역, 앞의 책, 241쪽.

31) 위의 책, 241쪽.

된다. 하지만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이전 성과와의 차별성 때문이다. 물론 번역은 연구와 달라서 기번역과 다른 점을 일일이 밝히지 못하므로 오역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기존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새롭게 번역한 의의를 발견하기 어렵게 된다.

『석북집』 권10에 실려 있는 <관서악부>는 신석초와 이은주의 완역이 존재한다. 이 중 이은주 번역본은 각 작품마다 자세한 주석과 해설을 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³²⁾ 이 번역은 <관서악부> 연구자의 전문성이 반영된 탁월한 성과이다. 필자가 검토해 보니, 완역본 역시 이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관서악부> 제19수를 신석초 역본, 이은주 역본, 완역본의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八條遺教半無存	팔조유교(八條遺敎)는 반쯤 거의 없어졌지만
風俗如今夜閉門	풍속은 지금껏 야폐문(夜閉門)을 하더라.
惟有舊時宮井畔	오직 옛날 궁밭둑이 남아
月明絃誦外城村	달빛 속에 노래가락 들려 오는 외성촌(外城村). ³³⁾

八條遺教半無存	팔조목의 가르침 거의 사라졌지만
風俗如今夜閉門	풍속은 여전해서 밤에도 문을 열어 두네.
惟有舊時宮井畔	그 옛날 기자궁과 기자정만 남아 있어
月明絃誦外城村	밤에 글 읽는 소리 외성촌에 들리네. ³⁴⁾

八條遺教半無存	팔조의 남은 가르침 반은 사라졌지만
風俗如今夜閉門	풍속은 지금 밤에도 문을 열어 두네.
惟有舊時宮井畔	오직 그 옛날 궁과 정전 남아 있어
月明絃誦外城村	달 밝은 밤 외성촌엔 글 읽는 소리 들리네.

32) 이은주 역해, 『관서악부: 평안감사가 보낸 평양에서의 1년』, 아카넷, 2018, 1~354쪽.

33) 신석초 역, 앞의 책, 291쪽.

34) 이은주 역해, 앞의 책, 107쪽.

신석초는 제3구의 ‘宮井畔’을 ‘궁밭둑’으로, 제4구의 ‘絃誦’을 ‘노래가락’으로 번역했을 뿐 주석도 달지 않았는데, 이를 정확한 번역이라 보기는 어렵다. ‘宮井畔’은 ‘기자궁’과 ‘정전’으로 표현해야 정확하다. ‘絃誦’은 『예기(禮記)』 <문왕 세자(文王世子)>의 “봄에는 현악 없이 읊조리고 여름에는 현악에 맞추어 노래 한다.[春誦夏絃]”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보이는 ‘현가(絃歌)’와도 같은 뜻이므로, ‘글 읽는 소리’라고 번역한 것이 옳다. 신석초 번역본이 다른 두 번역과 다른 점은 제2구의 ‘夜閉門’이다. 이은주 역본과 완역본의 경우, 원문이 ‘夜閉門’이고 번역은 모두 ‘문을 열어 두네’로 되어 있다. ‘閉門’은 ‘한적한 문’ 정도의 뜻인데, 두 번역 모두 기자의 팔조금법이 다 전하지는 않으나 현재의 풍속은 순박하므로 밤에 문이 한적하게 열려 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閉’와 ‘閑’ 중 어느 것이 옳을까? 저본인 ‘한국문집총간’(국립중앙도서관본)을 비롯하여 『송문연방집』 수록본, 장서각본 등 1906년 간행본에는 모두 ‘閉’로 되어 있다. <관서악부>는 필사본으로도 유통되었는데, 검색을 통해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국립중앙도서관본(2종)·규장각본(3종)·버클리대본·전남대본의 경우도 모두 ‘閉’이 아닌 ‘閑’였다. 그러면 도대체 완역본의 ‘閑’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다름이 아니라 한국고전종합DB의 원문이 ‘閑’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은주는 사나운 평양 풍속과 관련된 기록들을 제시하고 자세히 설명하였지만,³⁵⁾ 제2구를 관찰사의 선정에 따른 결과로 이해했기 때문에 ‘閉’를 ‘閑’으로 착각하였고, 이에 따라 제3구의 ‘惟’를 ‘오직’이 아닌 어조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의 제1구와 제3구는 과거 기자의 교화를, 제2구와 제4구는 현재 평양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는 인과 관계에 있다. 그리고 앞의 두 구와 뒤의 두 구는 서로 대조적이니, 그것을 보여 주는 글자가 바로 ‘惟’이다. 완역본은 ‘惟’를 ‘오직’으로 번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고전종합DB 입력본을 믿었기에 기번역의 실수를 바로잡지 못했다.

35) 위의 책, 108~109쪽.

<관서악부> 필사본 중에는 평어가 붙어 있는 이본이 있는데,³⁶⁾ 제19수에는 김구(金丘)가 지은 <경자세조몽고과서경(庚子歲朝蒙古過西京)>의 ‘月明萬戶不知閉’라는 시구가 인용되어 있다. 이는 두 시에 공히 나오는 ‘閉’ 자 때문에 달린 것으로,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 평양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다. 김구는 1240년에 송언기(宋彦琦)를 수행하여 몽고에 간 일이 있었는데, <경자세조몽고과서경>은 그때 평양을 지나다가 감회를 읊은 것으로, 제7구~제10구에서 “달 밝은 밤 만호 장안은 문닫을 줄도 모르고, 조용해진 큰 거리엔 떨어진 물건 줍지도 않았네. 지금엔 지난 일 모두 쓸어버린 듯, 가없게도 성곽엔 푸른 풀만 속절없네.[月明萬戶不知閉, 塵靜九衢無拾遺. 如今往事盡如掃, 可憐城闕空青草.]”라고 하였다.³⁷⁾

이상의 사례는 『석북집』 완역본을 훑어보다가 눈에 특별히 들어온 것들 중 몇 가지를 두서없이 나열한 것에 불과한바, 완역본의 의의를 이야기한다고 해 놓고 오역 사례들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 무엇보다도 완역본의 현재 상태가 오역이 거의 없는 최고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번역본이 이미 출판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정도로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았겠지만, 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실수를 수정할 시간은 남아 있다. 이상 언급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도 의미가 있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완역본의 ‘의의’가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

4. 정본과 전집, 그리고 대중화를 향하여

조선 시대의 문집은 일반적으로 한시가 앞에, 산문이 뒤에 배치되어 있으며,

36) 이은주, 『행복한 상상, 신광수의 관서악부』, 도서출판 설렘, 2023, 273~284쪽.

37) 민병수, 『한국한시대강』 1, 태학사, 2013, 481~483쪽.

마지막에 연보나 행장이 들어가고 기타 저자와 관련된 타인의 글이 부록된다. 문집 간행 시에는 선별과 교정을 거치기 때문에 초고본이나 필사본에 들어 있던 글이 간행본에 수록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문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잡록이나 소설 등은 필사본으로 남아 있거나 별도로 간행되기도 한다. 어쨌든 문집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저자의 시문이 교정을 거쳐 정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간행본 문집은 저자의 삶과 문학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번에 번역한 『석북집』의 대본은 1906년에 간행한 목활자본인데, 문제는 이 간행본에는 오류가 적지 않고 미비한 점도 있어 정본(定本)으로 삼기 어렵다는 사실이다.³⁸⁾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것보다는 『송문연방집』 수록 교정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사례이지만, 『송문연방집』에서는 『석북집』 권1에 수록된 <변산에서 돌아온 뒤 삼가 외숙 이 두릉 사군께 부치다[歸自邊山奉寄杜陵李使君叔]> 둘째 수[其二]³⁹⁾의 제목을 ‘別景休’로 교정하고 ‘戊辰’이라는 간지를 표시해 놓았으며, 셋째 수[其三]⁴⁰⁾는 ‘其二’로 고쳐 놓았다. 이에 의하면 이 두 수의 시는 모두 <별경휴>로, 외숙 이제암(李齊岳)이 아닌 그 아들 이우경(李羽慶)과 헤어지면서 지은 것인데,⁴¹⁾ 신석초 역시 ‘別景休’(二首)라는 제목 하에 번역했다. 신석초 번역본과 『송문연방집』 모두 필사본을 참조하여 교정했던 것이다.

38) 『석북집』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은주의 선행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이은주, 「석북 문집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215~224쪽.

39) 掛帆君已遠, 回馬我猶遲. 野曠星河落, 橋寒霧樹垂. 秋聲臨水動, 別意在船知. 來日杜陵下, 詩成欲寄誰.

40) 蘆花江上棹歌聲, 立馬津亭曉別情. 兩岸青山一十里, 孤舟不見霧中行.

41) 『石北集』 권1에는 <桃渚夜酌拈韻得衣字與夢瑞台甫彝甫景休共賦>라는 시가 있다. 원역본의 주석에서는 “경휴(景休): 신광수(申光洙) 처남의 자(字)인데, 이름이 자세하지 않다. 신광수의 외숙 이제암(李齊岳, 1690~1778)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자(字)가 원성(元城)인 이응경(李凝慶)과 이우경(李羽慶)은 양자로 나갔고, 이승경(李承慶)이 뒤를 이었다. 이우경과 이승경 중에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장서각 한국학자료센터 왕실족보 <http://royal.aks.ac.kr> 검색일: 2023년 9월 21일)”라고 하였는데, 오류가 많아 수정을 요한다.

신석초 역본과 『송문연방집』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석북집』 권4에 실린 <전가(田家)>의 경우, 『송문연방집』에는 ‘乙卯’라는 간지 이외의 부기가 없지만, 신석초 역본에는 이 시의 제목이 ‘長夏’로 되어 있다. 또 『석북집』 권2의 ‘서관록’은 신석초 역본의 제4권에 해당하는데, 번역본 ‘서관록’에는 『석북집』 권1의 <도중(道中)>⁴²⁾이 포함되어 있다. 신석초는 “이듬해 신사년에 두번째로 평양(平壤)을 방문하였다. 서울을 떠나 도중에서 지음.”이라는 주석을 달아, 이 시를 1761년 작으로 보았으나, 『송문연방집』에는 아무 기록도 없다. 완역본에서는 이 시의 수련을 “삼월 저물녘에 말 타고 문을 나서니, 서울까지는 장정이 스물네 개라오.[騎馬出門三月暮, 西京二十四長亭.]”라고 하였고, 신석초는 “말에 올라 문을 나서니 삼월이 저물어 가네. 서경(西京) 스물 네 곳 장정(長亭)이 아득하다.”라고 하였으니, 같은 시를 두고 전혀 다르게 이해한 것이다.

이번 『석북집』 완역을 계기로 신광수의 삶과 문학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석북집』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본(定本) 석북(石北) 전집(全集)’이라는 후속 작업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광수 관련 자료들을 모두 모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집은 저작 시기에 따라 작품이 배열되는데, 완역본의 저본이 된 『석북집』은 배열 순서 및 제목 등에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락된 작품도 적지 않다. 『송문연방집』에 문집 미수록 작품들이 부기되어 있지만 그 밖에도 미처 수습되지 못한 자료들이 더 있을 것이다. 신석초 역본과 『송문연방집』은 가정본(家藏本)을 참조한 것이 분명하나 아쉽게도 그 소재를 알 수 없었는데, 최근 신광수 집안 자료들이 소개되면서 『서관록』·『부혜록』 등 가정본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문집에 없는 작품들도 소개되었다.⁴³⁾ 나머지 필사본 및 원본 계열 초고도 조만간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삼명시화』나 『병세재언록』 같은 잡록집에도 신광수 관련 기록들이 존재하므로 이 역시 정리의

42) 騎馬出門三月暮, 西京二十四長亭. 鵲花石壁稀餘照, 燕麥江田起遠青. 獨憶今朝如昨日, 正於前嶺見參星. 人生半是途中老, 後夜鷄鳴何處聽.

43) 장유승, 「석북 신광수가 신자료 소개」, 『대동한문학』 78, 대동한문화회, 2024, 257~287쪽.

대상이다.

다음으로 전국의 도서관 및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석북집』 필사본들을 수집하여 이본 간의 동이를 비교하고, <관서악부>나 <관산용마>처럼 별본으로 유통된 자료들도 최대한 모아 그 존재 양상을 정리해야 한다. <관서악부>는 이본에 따라 글자가 다르기도 하고 작품의 배열 순서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문집 수록본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으나 필사본에는 문집에 없는 평어가 붙어 있으므로 이 역시 소중한 기록이다. 과제시는 문집에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정리가 필요한데, <관산용마>가 가장 유명하지만 기타 작품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이루어진 『석북집』 완역과 향후의 과제인 ‘정본 석북 전집’의 구축은 신광수의 문학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있으므로 대중화를 위한 별도의 작업이 요청된다. 현재 출간되어 있는 선집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것은 이은주의 『관서악부: 평안감사가 보낸 평양에서의 1년』으로, 번역문에 자세한 해설을 가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는 번역자가 신광수 전공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신광수의 시문은 애초에 작품이 창작된 지역이나 다루고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묶여 있었던 만큼, 지역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중화를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지자체에서 발간한 선역본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개 단순 번역에 그쳤으며 역자의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었다. 추후 이와 유사한 사업을 기획할 경우, 번역서라는 가시적 결과물만 생각하지 말고 내실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종의 문집을 대상으로 한국고전선집을 발행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그 작업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 선집은 정확하면서도 가독성 좋은 번역에 해당 전공자의 해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완역본이 부담스러운 일반인들이 유명 문인·학자의 글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도 전문성까지 놓치지 않았다. 신광수의 시문 역시 ‘한국고

전선집'의 사례처럼 대표작을 엄선해 상세한 해설을 가한 선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선집이나 평설은 신광수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삶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일반 독자가 김시습의 생애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매월당집』을 읽는 것보다 이문구의 소설 <매월당 김시습>이나 심경호의 『김시습 평전』을 읽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신광수의 경우, 그의 문학사적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그의 삶을 다룬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이다. 이제 『석북집』도 완역된 만큼, 신광수의 삶과 문학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평전(評傳)이 집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5. 맺음말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거점연구소협동번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고전번역연구소에서는 2023~2024년에 신광수(申光洙)의 『석북집(石北集)』을 번역하였는데, 이 번역본은 1906년에 간행된 목활자본 『석북집』을 최초로 완역한 것이다. 본고는 『석북집』 완역을 기념하여 그 성과와 의의, 그리고 향후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석북집』에는 한시 1,843수, 산문 195편이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신광수의 작은 한시 1,775수, 산문 187편이다. 본 완역본 이전에도 신광수의 시문은 누차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방대한 성과는 신석초의 번역본인 『석북시집·자하시집』으로, 한시 749수를 번역하였다. 그 밖에 각종 선집 및 연구물에서의 번역까지 합하면, 본 완역본이 출간되기 전까지 『석북집』의 절반가량은 번역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북집』 완역의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석북집』을 최초로 완역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기존에도 주요 작품들은 번

역이 이루어졌고 연구 성과도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었지만, 신광수의 삶과 문학의 진모는 이번 완역을 통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번역본 대비 수준 높은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석북집』 완역본은 역량을 검증 받은 역자들이 번역한 것으로, 그간 이루어진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였기에 번역의 정확성이 높고 주석 또한 상세하다. 셋째, 신광수의 삶과 문학 및 『석북집』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관산용마>·<관서약부>·<검승전> 같은 대표작들이 주로 다루어졌으나, 이번 완역을 계기로 그간 눈길이 닿지 못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본격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완역본 역시 결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필자가 검토한 결과 특히 한시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역의 사례를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책이 출판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오역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완역본의 저본인 1906년 간행 목활자본은 오류가 적지 않고 미비한 점도 있어 정본(定本)으로 삼기 어려우므로, 초고본 및 필사본까지 아우르는 ‘정본(定本) 석북(石北) 전집(全集)’이라는 후속 작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과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일반 독자를 위한 선집의 출간 및 평전(評傳)의 집필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申光洙, 『石北集』, 『영인표집 한국문집총간』 231, 민족문화추진회, 1999, 1~516쪽.
한국한문학회연구회 편, 『崇文聯芳集』, 탐구당, 1975, 1~646쪽.
- 김남이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8, 보고사, 2010, 1~566쪽.
김일우·홍기표·김익수 역, 『역주 제주 고기문집』, 제주문화원, 2007, 1~432쪽.
민병수, 『한국한시대강』 1, 태학사, 2013, 1~731쪽.
민족문화추진회, 『한국문집총간 해제』 5, 민족문화추진회, 2001, 1~538쪽.
박희병·정길수 편역, 『기인과 협객』, 돌베개, 2010, 1~210쪽.
신석초 역, 『석북시집·자하시집』, 대양서적, 1973, 1~401쪽.
신해진 선주, 『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1~363쪽.
유중수·이민호·최이호 역, 『석북집』(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미간행), 1~2617쪽.
이가원 역편, 『이조한문소설선』, 민중서관, 1961, 1~514쪽.
이은주 역해, 『관서약부: 평안감사가 보낸 평양에서의 1년』, 아카넷, 2018, 1~354쪽.
이의강 외 역, 『금마일기·유금마성기·금마별가』, 익산시, 2021, 1~509쪽.
임형택 역, 『한문서사의 영토』 1, 태학사, 2012, 1~528쪽.
임형택, 『이조시대 서사시』(상), 창작과비평사, 1992, 1~319쪽.
정민·이홍식 편역, 『한국산문선』 6, 민음사, 2017, 1~392쪽.
조남권·이진오 편역, 『한국고전비평론』 2, 민속원, 2007, 1~528쪽.
허경진 엮음, 『석북 신광수 시선』, 평민사, 1989, 1~135쪽.
- 김경희, 「검승전에 나타난 인물 관계의 다문화적 고찰」, 『다문화와 평화』 8-3,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4, 21~43쪽.
박우훈, 「석북 신광수의 산문세계」, 『인문학연구』 33-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47~70쪽.
송지원, 「석북과 음악」,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225~239쪽.
신두환, 「관산옹마의 작품세계와 두시수용의 미의식」, 『한문학논집』 40, 근역한문학회, 2015, 43~82쪽.

(DOI : 10.17260/jkdc.2015.40.43)

- 신장섭, 『석북 신광수와 관서악부 연구』, 북스힐, 2008, 1~384쪽.
- 심경호, 「관산용마의 형식과 주제사상」, 『어문논집』 59, 민족어문학회, 2009, 169~193쪽.
- 안대회, 「석북가와 조선 후기 문단」,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207~214쪽.
- 윤경수, 『석북시연구 -석북문집 소재를 중심으로-』, 정법문화사, 1984, 1~231쪽.
- 이가원, 「석북문학연구」, 『동방학지』 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9, 149~204쪽.
- 이기현, 『석북 신광수 문학 연구』, 보고서, 1996, 1~523쪽.
- 이상원, 「이세춘 그룹의 가악 활동 양상과 특징」, 『국제어문』, 50, 국제어문학회, 2010, 93~120쪽.
- 이은주, 「석북 문집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215~224쪽.
- _____, 「진짜인가, 진짜로 만든 것인가 -18세기 광노자 사건의 이해-」, 『이화어문논집』 49, 이화어문학회, 2019, 30~53쪽.
(DOI: 10.29190/JEKLL.2019.49.30)
- 이은주, 『행복한 상상, 신광수의 관서악부』, 도서출판 설렘, 2023, 1~284쪽.
- 이향배, 「석북 신광수의 여강록 연구」, 『한문학논집』 67, 근역한문학회, 2024, 73~99쪽.
(DOI: 10.17260/klc.2024.67..73)
- 장유승, 「석북 신광수가 신자료 소개」, 『대동한문학』 78, 대동한문학회, 2024, 257~287쪽.
(DOI : 10.21794/ddhm.2024.78.257)
- 정인혁, 「김승전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97~225쪽.
- 정하영, 「김승전의 인물형과 갈등 양상」,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93~123쪽.
- 조현우, 「조선 후기 소설의 향왜 형상과 민족의 구성 -김승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7, 한국고소설학회, 2024, 5~38쪽.
(DOI : 10.23836/kornov.2024.57.5)

| Abstract |

The Significance of the Complete Translation of the Seokbukjip

Eom, Tae-sik
Chosun Univ. Prof.

This paper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complete translation of Seokbukjip. The complete translation of Seokbukjip, translated by the Chosun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is based on a wooden type edition published in 1906, and contains 1,843 poems and 195 prose pieces. Before the complete translation of Seokbukjip was published, only about half of the works included in Seokbukjip had been translated.

The significance of the complete translation of Seokbukjip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the complete translation revealed the overall picture of Shin Gwang-su's life and literature. Second, the level of translation has improved compared to previous translations. Third, it became possible to conduct full-scale research on Shin Gwang-su's life, literature, and Seokbukjip. However, the complete translation of Seokbukjip is not without its problems, especially as many mistranslations of poetry were discovered.

The complete translation of Seokbukjip provided an opportunity to comprehensively examine Shin Gwang-su's life and literature, but the 1906 edition that served as the basis for the manuscript

contained many errors. Therefore, a follow-up work called 'Complete Translation of the Seokbukjip in Critical Edition' is necessary. In addition, in order to make Seokbuk's literature widely known to the general reader, anthologies and biographies should be published.

Key Words : Seokbuk, Shin Gwang-su, Seokbukjip, the Complete Translation of the Seokbukjip,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